

## 세인트존스 대학의 Great Books Curriculum<sup>1)</sup> 고전을 통한 자유교양교육의 비전제시와 그 현실적 구현

이용화 인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sup>2)</sup>

### 초록

이 논문은 경제적, 정치적, 인문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고등 교육을 추구하는 다양한 이유를 고찰한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대학 교육이 국가 경쟁력과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물질적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가 있다. 또한, 토머스 제퍼슨의 역사적 통찰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번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이 논문은 고등 교육의 중심이 직업 훈련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재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고전 자유교양교육의 더 넓은 사회적, 지적 혜택을 간과하는 것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독특한 고전 커리큘럼과 세미나 방식으로 유명한 세인트 존스 대학의 모델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를 한국의 자유 교양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잠재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및 사회가 급변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다양한 경력과 평생 학습을 위해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전문 기술과 고전적 지혜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포괄적인 교육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다재다능하고 전인적인 개인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2019년부터 세인트존스의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한국 교육현장에 적합하도록 발전시켜 온 I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의 전공 및 교양 교육 커리큘럼에 이러한 교육 방법과 내용을 통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살펴 본 후 인천 지역과 춘천 지역에서 지난 몇 년간 중고등학교 교육과 시민 교육에 접목하여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키워드

세인트존스 대학, Great Books Curriculum, 고전, 자유교양교육

Manuscript received April 7, 2024 / Revision received May 15, 2024 / Accepted May 22, 2024

1) 이 논문은 2022년도 인천대학교 자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 ylee@inu.ac.kr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 1. 서론

대부분의 대학 교육 전문가들은 왜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가에 대한 이유를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먼저,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에 가는 것이 국가 구성원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국 개인과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는 대학 학위가 전문 기술을 요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경제적 측면 외에 대학 교육의 필요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거로도 연결된다. 가령, 18세기 말 토머스 제퍼슨은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하였는데 새로운 공화국이 번영하고 존속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받은 시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대학 교육은 우리가 경제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에만 경도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다는 견해인데, 이는 그리스, 로마의 교육 전통에서 비롯된 자유학예(artes liberales)의 개념과 연결된다. 자유학예란 본래 지배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로서 공부할 여유 시간이 있는 남자 자유인 또는 남자 귀족을 위한 교육을 의미하였다. 고전 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다룬 문학작품들을 읽어내며 핵심적인 정치사항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색과 형태, 멜로디와 하모니에 대한 감수성을 고양시키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자유인의 삶을 풍성하고 충실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류의 오랜 전통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익히는 동시에 그러한 지식과 문화의 비판적 흡수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통찰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Delbanco, 2012/2016).

오늘날 적지 않은 미국의 대학들이 대학교육의 민주화를 통해 자유학예의 전통을 “교양 교육”(liberal education)으로 수용하여 교양교육 과정으로 발전시켰고 주로 학부중심의 자유교양대학(liberal arts college)에서는 전면적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신자유주의의 경쟁논리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적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자유교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대학의 교과과정에 고전 교육의 전통을 반영하고자 하는 꿈은 사실 “교양 이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노골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온 수사에 불과”하며 “오히려 수많은 교육제도의 개혁이 지식의 산업화나 경제화를 목표로 하며, 바로 그 때문에 고전적인 교양 이론의 여러 개념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 이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평생 배우려는 각오로 자신의 인식 능력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끼워 맞추는 유연한 인간은” 역설적으로 “인문주의적 교양인상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이다(Liessmann, 2008/2018).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전문영역의 지식을 갖춘 동시에 포괄적인 교양인이자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것이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뉴욕 타임즈에서 오랫동안 교육 에디터로 활동하였고 각 대학에 관한 충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와 관련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대학정보연구소를 운영해 온 미국 대학교육 현실의 권위자인 로렌 포프(Loren Pope)는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에서 사람들이 대학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줄 것으로 자신이 선정한 40개의 미국 대학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을 가장 입학시키고 싶은 대학으로 세인트존스 대학을 꼽고 있다. 이 책에서 포프는 세인트존스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지적인, 없어서는 안 될 4개의 대학” 가운데 하나이며 이 대학의 교육이야말로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마음에 그리던 바로 그것”이었으며 “민주주의의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런 교육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Pope, 2006/2008). 이 판단이 옳다면 세인트존스의 고전 교육은 학생들을 최고의 지성인이자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양성해 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인트존스 대학은 1696년에 왕립 학교로 세워졌지만 1937년도에 급진적인 고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었다. 세인트존스에서 다루는 고전의 목록은 지난 세기를 거치며 꾸준히 변화되어 왔지만 모든 학생들이 양 문명의 초석을 다진 텍스트를 읽는 전통은 그대로 이어져왔다. 100권의 고전 토론이 4년 커리큘럼의 전부인 이 대학의 독창적인 세미나 수업 방식은 사실 의외로 간단하다. 다양한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에 교수 2명과 학생 15명 정도가 함께 참가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감성적 능력을 동시에 길러 나간다. 학생들은 관습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으며 독창적인 사고능력을 갖추게 되고 고전을 통해 위대한 사상가들과 진리와 정의 및 자유를 추구한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지적 공동체의 전통에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대학의 존재이유와 이상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할 때 지성인과 민주시민을 배출한다는 대학의 본연적 목표에 더하여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 학자들은 현재의 대학 교육이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에 얼마나 뒤떨어지는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단 한 개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특히 “미래 세대는 평생 동안 3개 이상의 영역에서 5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19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될 것”(KBS, 2016)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전 분야에서 이처럼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과연 세인트존스의 전통적인 고전 토론 수업 모델이 학생들이 현실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도 동시에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통합적 고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반영한 독창적 교과과정을 통해 4년간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훈련을 거치며 독자적인 사고능력과 다양한 학문분야의 고전적 지식을 갖춘 세인트존스 대학의 졸업생들이 직업선택과 학문추구 양쪽 측면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점이다. The Higher Education Data Sharing Consortium(HEDS)의 통계자료에 기반한 세인트존스 대학

졸업생 취업관련 자료에 따르면 3), 이 대학 학부 졸업생의 취업 분야 분포는 교육(19%), 법(10%), 경영(20%), 건강/의료(9%), 커뮤니케이션과 예술(15%), 사회과학(2%), 컴퓨터/과학, 수학(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드러낸다. 또한 2014년 기준 이 대학 졸업생의 박사학위 취득율은 졸업생 100명 기준으로 미국 대학 전체 상위 2%에 속하고, 아나폴리스 캠퍼스 졸업생들의 인문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율은 미국 대학 중 전체 1위, 과학 또는 공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율은 상위 4%에 속한다. 100명의 졸업생을 기준으로 15명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85명은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지만 이 가운데 70명 정도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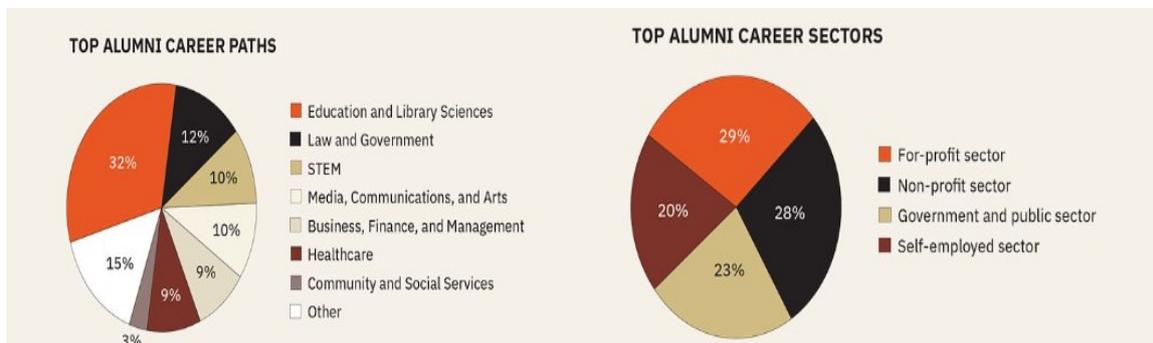


그림 1 세인트존스대학 졸업생 진로 및 진출 분야<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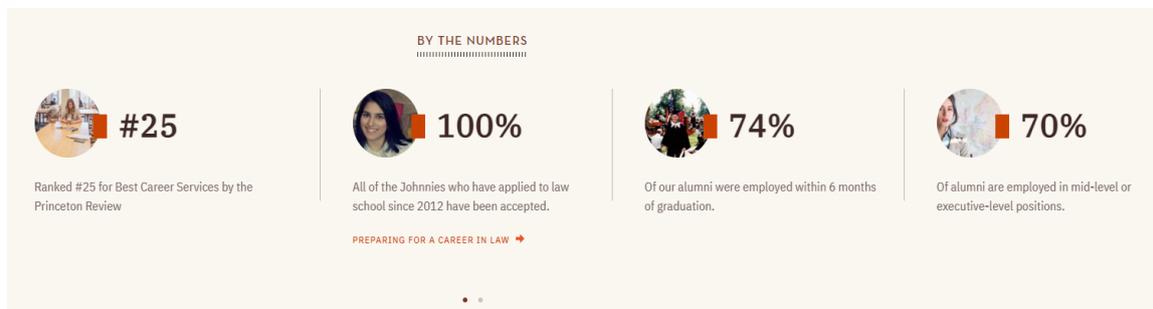


그림 2 세인트존스대학 졸업생 취업 및 진학 관련 통계 자료<sup>5)</sup>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 분야가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졸업생들 대다수가 평생 동안 실용적 직무 경험과 학문 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지적 성취 욕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이 통섭과 전문성 추구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대학 교육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 서적 없이 고전만을 읽고 토론하는 교과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런 성취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는 이 대학의 통섭과 융합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도서 목록을 보면 플라톤의 『공화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헤로도토스의 『역사』, 유클리드의

3) <http://www.sjc.edu/career-success>

4) <http://www.sjc.edu/career-success>

5) <http://www.sjc.edu/career-success>

『기하학』, 스미스의 『국부론』, 니체의 『선악의 저편』, 라부아지에의 『화학요론』, 하비의 『동물의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연구』,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다윈의 『종의 기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등 학문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문사철 위주의 인문 고전만이 아니라 생물, 화학, 물리 등을 포함한 자연과학, 수학,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서구 고전을 통섭적으로 탐독하며 토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세인트존스와 미국의 다른 자유학예대학 및 핵심교양(Core)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대학들과 변별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 세인트존스 프로그램의 구성과 목표는 세속적 지향성을 보이며 자유학예와 핵심교양 교육을 통해 학부 졸업 후 고소득 전문직과 관련된 석사 과정에 진학하거나 특정 학문 분야의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자유로운 성인”으로서 균형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인을 배출하는 것이다. 둘째,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하는 다수의 대학들과 달리 애초에 “학제 전”(pre-disciplinary) 접근법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의 파편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과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총체적 지식을 쌓아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준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 학계에서 현대 사회에서 고전 혹은 정전 위주의 교과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두고 벌어진 소위 “정전 논쟁”(canon war)에서도 이 학교의 교과과정과 수업 방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사실 고전을 통해 통섭과 융합 교육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졸업생들이 다양한 진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할 학문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세인트존스의 프로그램은 고전 교육의 가장 혁신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한국의 대학 교육의 현장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의 교과과정과 수업 방식을 참고하여 우리의 사회적 목표와 현실적 여건에 맞추어 인문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세인트존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발전과정 및 이 학교 교수들의 독특한 수업 방식과 교수법을 분석하고 난 후 이를 한국대학의 전공 및 교양 과정에 접목시킬 때 당면하게 될 난관을 간단하게 언급해보고자 한다.

## 2. 세인트존스 대학 프로그램

### 2.1. 서구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과 사상에 집중한 자유교양 교과과정(a liberal arts curriculum)

#### 2.1.1. 대학의 사명

세인트존스 대학의 로고에 적혀있는 라틴어 문장인 “Facio Liberos Ex Liberis Libris Libraque”의 의미는 “나는 책과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어린 아이들을 자유로운 성인으로 길러 낸다”(I Make Free Adults from Children by Means of Books and a Balance)라는 의미이다. 대학 교육에서 특정한 전공분야의 이론이나

단순한 지식 전수형 모델을 거부하고 소규모 세미나 중심 수업에서 학문 전 분야의 고전 텍스트를 골고루 읽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자 균형 감각을 갖춘 성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특기해 둘 점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성인의 개념은 세인트존스가 추구하는 자유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무지의 상태로부터의 벗어난다는 의미 외에도, 무지에 따른 속박에서 벗어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마음껏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한 직업을 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특정한 전문분야에 필요한 파편화된 지식만을 추구해야 할 압박으로부터의 자유까지, 폭넓은 자유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 2.1.2. 자유 교양 교육과 미국의 핵심적 가치 수호

지적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인 독서와 토론 및 자아 성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풍부한 인간성과 폭넓고 깊이 있는 사유능력을 갖추고 전통적 교육을 비판으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 담론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전인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에 더해 세인트존스의 자유 교양 교육은 20세기 초중반 미국 사회의 핵심적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의지 와도 맞닿아 있다. 작가이자 기자였던 월터 립맨(Walter Lippman)의 1938년 신문 컬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인트존스와 같은 대학의 건립 이념의 정치적 함의는 자유교양 교육을 받고 배출된 인재들이 파시즘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의 변영을 이끌어 낼 방벽이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립맨은 “미래에는 사람들이 세인트존스 대학을 가리키며 저기 미국 르네상스의 모판(seed-bed)이 있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Nelson, 2001). 이처럼 세인트존스의 자유 교양 교육의 목표는 1, 2 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세계의 열강으로 부상하던 미국에서 문예부흥운동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했던 미국 민족주의 문학운동(American Literary Nationalism)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2. 세인트존스 Great Books 프로그램의 특징

Great Books 위주의 도서 목록을 따라, 모든 수업은 교수들이 토론을 촉진하는 세미나 스타일로 진행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원전 학습과 독특한 간 학문적 프로그램, ② 무시험, 무강의 수업, ③ 교수의 독특한 역할과 구두 평가, ④ 독특한 소규모 수업 진행, ⑤ 쌍둥이 캠퍼스 운영 등 다섯 가지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2.2.1. 원전 탐독에 바탕을 둔 독특한 간 학문적 프로그램 (original texts and a singular interdisciplinary program)

모든 학생들이 원전에 기초한 동일한 교과과정 이수하는데 원전이란 서양 고전의 토대가 되는 인문학과 과학, 수학 분야의 고전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전을 소규모 수업에서 2차 자료나 참고서적을 사용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 2.2.2. 무시험, 무강의 수업의 원칙 및 학점평가 지양

학교의 전반적인 문화와 분위기가 시험이나 학점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양한다. 입시 자체도 성적보다는 학업계획서와 면접 등을 위주로 선발하고 세미나 수업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평소의 토론 참여도와 기여도를 평가하고 기말 에세이 등을 참고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일반적인 A에서 F까지의 학점은 참고로만 부여한 후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요청할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2.2.3. 교수의 역할과 구두 평가 (No Professors, but Tutors, Don-Rags)

박사 학위를 소유한 교원들을 “professor”(교수) 라고 부르지 않고 “tutor”(개인교수) 라고 부른다. 이는 세인트존스가 지향하는 학업 수행 모델에서 교수자 본연의 역할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확립된 “학설”(doctrines)과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명백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전의 작가들과 텍스트가 제기하는 중요하고 난해한 질문들에 하나의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각적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생각을 검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세인트존스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튜터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텍스트를 지은 작가들이라고 간주된다.

학습은 다양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여러 층위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공동 작업이며, 특히 이러한 방식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는 시험을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참여 방식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밀도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방침에 따라 세인트존스 고유의 평가방식인 “Don-Rags”를 실시한다. 학기말에 해당 학생을 가르친 3명의 튜터들이 함께 모여 그 학생을 앞에 놓고 자신들끼리 한 학기 동안 그 학생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를 평가하고 진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학생은 튜터들이 자신의 장단점과 학업 수행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튜터들의 평가가 끝난 후 상담을 이어가며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 학습을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논의한다.

### 2.2.4. 독특한 소규모 수업 진행

이 학교의 교수 학생 비율은 1: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 비율을 토대로 모든 수업을 소규모로 진행하는데 가장 큰 수업 유형은 세미나이다. 세미나에는 2명의 튜터가 20명 가량의 학생을 데리고 진행한다. 세미나는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2시간 씩 진행되는데 학부생 대다수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학교 가까이에서 자취를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의 수업 시간 편성도 용이롭다.

낮 시간에는 주로 “tutorial”(그룹과외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다. 1 명의 튜터가 12명에서 16명 정도의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주로 희랍어나 프랑스어 등의 외국어 수업이나 실험 수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다른 수업 유형으로는 “preceptorial”(개인지도과목)이 있는데 이 수업에는 튜터 1명에 3~9명

가량의 학생이 함께 공부한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튜터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주제와 텍스트를 정해 공고를 내면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수강하는 방식으로 세인트존스 수업 유형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어느 정도의 선택 과목 같은 요소를 가진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 2.2.5. 쌍둥이 캠퍼스 운영

세인트존스 대학은 동일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와 뉴 멕시코 주 산타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 학생들은 1년 단위로 캠퍼스간 교차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전체 학생 가운데 25% 가량이 캠퍼스를 바꾸어 공부를 하곤 하는데 두 캠퍼스의 교과과정과 수업 방식이 동일하긴 하지만 동부 지역에 속하는 아나폴리스 캠퍼스의 학풍과 뉴멕시코의 산타페 캠퍼스의 학풍 및 지리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양쪽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자극이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특기할 것은 서양 고전만을 공부하는 아나폴리스 캠퍼스의 대학원 과정과는 달리 뉴 멕시코 캠퍼스에서는 서양 고전을 다루는 대학원 과정 외에 1년 과정의 동양고전 석사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동양 고전 석사 학위(a Master of Arts in Eastern Classics)도 수여하고 있다.

---

## 3. 교과과정의 구성 및 수업 유형

### 3.1. 학습 영역: 선택 교과목 없이 모든 학생이 4년간 동일한 교과과정 이수

#### 3.1.1. 고전과 희랍어(Classical Studies and Greek)

1학년 첫 학기 시작과 더불어 고대 희랍어의 필수 요소들을 학습하기 시작한다. 학년 말에 이르면, 1학년들은 사전과 노트를 참고하여 희랍어를 영어로 번역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 3.1.2. 프랑스어(French)

프랑스어 학습은 언어 학습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시킨다. 3학년 학생들은 짧은 텍스트를 번역하고 토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문법과 어휘력을 습득한다.

#### 3.1.3. 역사, 정치학, 법과 경제학(History, Politics, Law, and Economics)

교실 안팎에서 학생들은 서구 사회를 형성해 온 고대의 사상을 토론한다. 특히 역사, 정치학, 법과 경제에 연결된 사상이 중요하다.

#### 3.1.4. 문학(Literature)

세인트존스에서 학생들은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학습한다. 세미나와 언어 튜토리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선정된 작품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이 배우 바를 세상에 적용시키는 법을 배워 나간다.

### 3.1.5. 수학(Mathematics)

학생들은 수학 분야의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저술을 공부한다. 수학의 공리와 정리 수 백가지를 수업 시간 내에 다른 학생들에게 증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3.1.6. 음악과 예술(Music and the Arts)

세인트존스 학생들은 위대한 음악과 미술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식적인 음악 수업은 2년간 지속되지만 노래하고, 연극을 만들고, 댄스 시간을 갖는 기회는 수업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대학생활 내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어진다.

### 3.1.7. 자연과학(The Natural Sciences)

학생들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을 책과 실험을 통해 학습해 나간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난해한 질문이나 기본적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런 질문들에 어떻게 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 3.1.8. 철학, 신학, 심리학(Philosophy, Theology, and Psychology)

세인트존스의 학생들은 교실 안팎에서 서구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들의 생각을 탐험해 나가며 서로를 알아가게 될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서양 문명의 위대한 영혼들은 철학, 신학, 심리학 분야에서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삶에 중요하고 현실적인 심오한 질문들을 제기하였기에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독특한 지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삶을 바꾸는 대학들』의 최근판에 묘사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 간에 주고 받는 대화를 귀동냥할 때 세인트존스 대학의 학생 식당보다 더 재미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 3.2. 학습 영역 분석

세인트존스 칼리지는 자유교양 학사 학위(a bachelor's degree in liberal arts)를 수여한다. 그러나 학점 취득 영역에 따라 전공, 부전공을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 3.2.1. 전공 2 분야

- 1 전공: 수학의 역사와 과학의 역사(History of mathematics and science)
- 2 전공: 철학(형이상학, 윤리학, 정치 이론 포함)

### 3.2.2. 부전공 2 분야

1. 고전학(classical studies)
2. 비교문학(comparative literature)

### 3.2.3. 그 외

언어, 역사, 정치학, 법, 경제학, 음악, 미술, 신학, 수학, 과학, 심리학 일부

## 3.3. 세인트존스의 6 가지 수업 유형과 수업 연한

학생들의 시간표를 기준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다른 수업 유형이 존재한다.

### 3.3.1. 세미나(Seminar)

모든 학생들은 4년간 세미나 수업에 참가한다. 세미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철학, 문학, 경제학, 신학, 심리학 등이 포함된다.

### 3.3.2. 수학 튜토리얼(Mathematics Tutorial)

모든 학생들이 4년간 수학 튜토리얼에 참가하는데 여기에는 기하학, 적분, 상대성 이론이 포함되고 이런 주제 역시 기본적으로는 토론 유형을 취한다.

### 3.3.3. 언어 튜토리얼(Language Tutorial)

모든 학생들이 4년간 고대 희랍어, 현대 불어 및 영시 튜토리얼에 참가한다.

### 3.3.4. 실험(Laboratory)

1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실험” 과목을 수강하는데 학생들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천문학, 우생학 등의 과학 텍스트를 토론하고 실험실에서 이 분야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실험들을 재현해 본다.

### 3.3.5. 음악 튜토리얼(Music Tutorial)

1학년과 2학년 때 학생들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 이론을 학습하면서 음악 튜토리얼에 몰입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바하, 모차르트, 바그너 등과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탐색한다.

### 3.3.6. 프리셉토리얼(Preceptorial, 3, 4 학년 유일한 선택과목)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세미나, 수학 튜토리얼, 언어 튜토리얼, 음악 튜토리얼, 실험 등을 수강하는 반면 3, 4 학년 때 학생들은 “프리셉토리얼”이라 불리는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프리셉토리얼 수업에서는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된 책 한 권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고 이와는 전혀 다른 주제에 관해 공부할 수도 있다.

### 3.4. 1 학년 수업 일정 실례: What is a Typical Freshman Class Schedule?

A Sample Freshman Schedule, Annapolis					
HOURL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9-10:10 a.m.	Language		Language	Music	Language
10:20-11:30a.m.		Mathematics		Mathematics	Mathematics
1-3:40 p.m.	Laboratory			Laboratory	
8-10 p.m.	Seminar			Seminar	Formal Lecture

## 3. 평가, 논란 및 시사점

### 3.1. 각종 평가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학 평가 기관인 US News and The Princeton Review 에 따르면 세인트존스 대학은 최상의 학부생 교육, 최고의 수업 경험, 및 교수-학생 친화성 등에서 미국내 최상위 대학에 속한다. 포브스(Forbes)는 세인트존스가 지적인 측면에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대학”(the most rigorous college in America)이라고 평한다. Zig Ziglar(1997)는 세인트존스 대학을 “대학다운 대학”(St. John’s: A College That Works)이라고 칭하였는데 이 대학이 모든 지식은 하나로 통한다는 “중세적”(medieval) 개념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공부하는 책들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평한 바 있다. 특히 세인트존스 대학 졸업생들의 81%가 교육, 공학, 법,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는 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며, 이 대학 졸업생들이 인문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률이 미국 내 5위 내에 든다는 점을 들어 세인트존스가 “무엇가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더 많은 대학들이 세인트존스 같은 교육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다”라고 주장한다. Quarz의 피터 마버(Peter Marber, 2017)는 세인트존스가 모든 학생들에게 똑 같은 것을 가르치는 데도 “미국에서 가장 전향적 사고를 하는, 미래가 검증된 대학”(the most forward-thinking, future-proof college in America)라고 평가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인트존스 대학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 대학이 보여준 뚜렷한 교육 이념과 실질적 성과로 인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험적 교과과정과 교육방식에 대한 고용주들의 반응 방식 역시 다수의 졸업생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세인트존스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취업을 하기 위한 면접에서 세인트존스를 모르는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가 이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과 공부한 내용을 듣고 나면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세인트존스의 독특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쌍수를 들어 이 대학 출신들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 3.2. St. John's College 가 제기한 논란과 시사점

세인트존스의 실험적 교육에 대한 논란: 지금까지 세인트존스 대학의 교과과정과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남학생 만으로 구성된 세인트존스 칼리지의 학생 대부분이 자원입대 하거나 징집된 결과 학교가 거의 공동화 됨으로써 폐교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1940년대 중반에는 인근의 U.S. Naval Academy에서 지속적으로 세인트존스의 학교 부지를 차지하겠다는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세인트존스 대학 홈페이지에 기록된 언론 보도 내용의 일부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비록 재학생이 200명도 채 안되는 작은 대학이지만 세인트존스는 그 실험적인 자유교양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 나라의 다른 대학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학문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학교의 최고의 책들을 읽는 프로그램은 오늘날 교육가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자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이미 세인트존스의 뉴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이 방식의 자유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가장 쉽게 떠오르는 문제는 전교생 모두가 4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수와 학생들의 선택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발적 동의를 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필수교과와 선택권의 문제는 적어도 세인트존스 자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1980년대 미국 대학에서 첨예하게 진행되었던 소위 “정전 논쟁”(canon wars)라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죽은 백인 남성”이 대변하는 정전 중심의 교과과정을 지탱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 전통적 시각이 존재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까지 학계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과 소수자들의 작품과 시각을 교과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대주의적,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맞서고 있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크라테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는 정전을 다루는 고전 교육 교과과정은 한 때는 학생들을 계몽하였고 자유롭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권위적이며 억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문화주의자들이 정전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 작가와 소수 작가의 작품들이 과거보다 교과과정의 도서목록에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흐른 현재는 이런 교과과정의 전환에 따른 비용과 혜택에 대해 보다 복잡한 견해가 존재한다. 대학 교육에서 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 수많은 지엽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대학들은 이에 맞설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의 교과과정이 마치 슈퍼마켓이나 잡화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들만 택하여 들을 수 있게 되자 유대인 학생들은 유대학과 관련된 수업만, 게이 학생들은 게이 스터디와 관련된 과목들만, 흑인 학생들은 아프로-아메리칸 스터디와 관련된 과목들만 수강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학이 아니라 지엽적 정체성 혹은 전문성만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인트존스의 자유교양 교육은 두 가지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미국 대학 전반에서 진행된 정전 전쟁에서 세인트존스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세인트존스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도서 목록을 선정할 때는 언제나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20세기 후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흑인 여성 작가인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대표작 『빌러비드』 (Beloved)는 매우 사랑받는 중요한 소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모리슨을 포함시키기 위해 플라톤의 저술 한 권을 제외하거나 초서(Chaucer), 포프(Pope), T.S. 엘리엇(Eliot)의 시 혹은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의 『미들마치』를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들은 훨씬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도서 목록 개정을 연기하는 쪽을 택하곤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인트존스의 유일한 선택 과목인 프리셉토리얼 수업에 현대의 다양한 작가나 영화감독의 작품들을 몇 주에 걸쳐 토론하는 방식으로 정전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간접적으로나마 수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썬타페 캠퍼스에 동양고전 석사 과정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서구 문명 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인트존스의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만한 점은 고전 교육에 집중할 때 전통적 접근 방식과 현대적 접근 방식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분명히 습득해야 할 지식과 텍스트가 있다는 관점을 대변하는 측과 학생들이 텍스트를 둘러싼 질문과 해석의 방식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단테의 『신곡』이나 셰익스피어의 비극 등을 다룰 때 고전 전통 모델(the classical tradition model)에 따르면 고전을 공부할 때 그리스와 로마가 서구 문명에 끼친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하지만 고전 수용 모델(the classical reception model)에 따르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과거의 지속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나 이에 도전하기 위하여 (고전을) 재전유하고 재정의하는 과정”(a process of reappropriation and redefinition to assert or challenge continuity with a privileged past)(Broder, 2013)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한 세인트존스에서 중시하는 교육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온고이지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원전을 최대한 충실히 읽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속한 지적공동체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나가면서 1차적으로 텍스트를 드러난 사실과 저자가 속한 시대와 문화적 관점을 고려해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와 동시에 그러한 사상과 관점이 자신들이 속한 현시대와 상황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현재 사회의 담론에 비추어 고민해 나간다.

### 3.3. 세인트존스 프로그램의 시사점: 인문학과 통섭교육

문제를 인문학으로 국한시켜 놓고 보자면 오늘날의 인문학은 지적 명망과 학생 및 재원 만이 아니라 그 토대 자체를 한편으로는 실증적 과학분야에 또 한편으로는 경영학 분야에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 (Martha Nussbaum)이 한 통의 이메일에서 “인문학에 대한 존중의 상실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가 된 것이라고 묘사한 것은 오늘날 인문 고전 교육의 문제점과 관련한 모든 정황을 반영한다. 누스바움에 의하면 자신이 가르치는 시카고 대학은 콜롬비아 대학처럼 여전히 학부생들을 위한 서양 고전의 핵심 교과과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분쟁의 쟁점이 인문학이 중앙 정부로부터 적절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미국이 다른 모든 나라처럼 “인문학을 과학과

기술에 비해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 분야가 완전히 말살되지 않도록 꾸준한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단언한다(Schelgel,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도들은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가라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5-16년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 965만 8천명의 학부생이 재학중인데 이 중 2% 미만인 13만 8천명 만이 영문학을 전공하고 역사는 이보다도 더 적은 8만 5천명이 전공하는 데 반해 경영학(business, management, and marketing) 20%에 가까운 178만 3천명, 건강(과학)관련 분야 137만 1천명, 교육 47만 5천명, 컴퓨터 사이언스 45만 6천명 정도가 전공한다고 한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d.). 이런 기형적인 학문의 분포 양상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대학의 존재 이유의 일부, 즉, 취업경쟁력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과는 잘 부합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및 자유교양 교육을 통하여 충실하고 균형잡힌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적 사고능력과 감수성을 갖춘 온전한 인간을 양성한다는 대학 본연의 목표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이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이 미래의 직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제기하는 것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날 대학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피교육자들이 대학 교육의 실용주의적 효용성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대치를 높여 놓았기 때문에 자유교양교육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 3.4. 세인트존스가 제시하는 답변

바로 이 지점에서 세인트존스 대학이 1937년에 도입하여 지금까지 고수해 온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Great Books Program)이 고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양교육과 취업 준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세인트존스에서 실시하는 통섭적 고전 교육은 지적능력을 발전시켜 주고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대표적인 고전을 읽고 토론하며 실험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전문 지식 외에 종합적 사고능력과 분석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응용력 등을 길러나가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인트존스 칼리지는 자유교양 학사 학위(a bachelor's degree in liberal arts)를 수여하지만 학생들의 학점 취득 영역에 따라 교과과정을 분석해보면 학생들은 복수전공과 복수부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셈이다. 첫 번째의 전공은 “수학의 역사와 과학의 역사” (History of mathematics and science)이고 두 번째 전공은 “철학”(형이상학, 윤리학, 정치 이론 포함)이다. 이 외에 추가로 “고전학”(classical studies)과 “비교문학”(comparative literature)을 부전공으로 이수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인트존스 대학의 고전융합 교육이 단순히 인문고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학, 철학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수학과 자연과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본적으로 문, 사, 철의 영역과 수학, 과학의 영역이 교차하며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지식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섭” (consilience)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언어, 역사, 신학, 정치학, 법, 경제학, 수학, 과학, 심리학 및 음악, 미술을 배워나가며 실험과 실습 교육도 함께

수행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이미 위에서 충분히 정리한 바와 같이 비현실적이라고 보일만큼 놀라운 성취로 입증되고도 남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세인트존스 대학의 교육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교육적 도전, 특히 기술발전예 따른 직업세계의 불확실성 등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능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구글 제미나이 개발팀 가운데 한 분야에서 리더로 근무하고 있는 세인트존스 대학의 졸업생이 이 대학에서 받은 학제 전(pre-disciplinary) 방식의 융복합 교육이 어떻게 자신의 직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 볼만하다. 이 졸업생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업무, 특히 LLM(Large Language Models) 개발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직무 스킬은 언어와 논리 그리고 대화(Language, Logic, Conversation)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직무역량을 키우는데 세인트존스의 교과과정과 교육방식 만큼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sup>6)</sup>

#### 4. 세인트존스 모델이 한국대학 수업 적용 사례와 성과

세인트존스 모델을 한국 대학의 교과과정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인천대는 2019년 1학기부터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가장 먼저 교양 수업에서 시도해 보았다. 교수자 2명이 튜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원이나 사각형의 대형으로 앉은 20명의 학생들 사이에 끼어 앉아 토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텍스트의 난이도와 분량 혹은 영역의 다양성을 고민한 끝에 세인트존스 대학처럼 책 전체를 읽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발췌본을 사용하였다. 또한 세인트존스 대학과 달리 고전을 고집하지 않고 20세기, 혹은 21세기의 저서도 포함을 시켰고 책이 아닌 영화와 같은 매체도 다루었다. 따라서 고전이나 명저라는 용어 대신 Great Books의 약자인 GB를 넣어 GB 세미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왜 우리는 대학에 왔는가,’ ‘시민되기과 정의의 문제,’ ‘근대적 지식인은 어떻게 탄생하였나’ 등의 강의명을 가진 교양 수업을 시도했다. 한국 대학의 대부분의 수업이 토의가 기반이 될 때도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교수자가 한 번 발언하면 학생이 발언하고, 학생의 발언을 받아서 다시 교수자가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GB 세미나는 튜터가 토의 방향을 조율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이 교수자가 아닌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질문과 발언에 반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행의 학사운영 규정과 지침에 따라 교수 2명, 학생 20명 이하의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지난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인천대 본부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려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었다는 것은 세인트존스 모델을 한국 대학의 교과과정에 적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단과대의 교수 2명이 팀이 되어 같은 수업을 한 학기 내내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좀 더 경험이 있는 교수가 다른 교수에게 세인트존스 대학의 토의식 수업 교수법을 전달하고 학제 융합적인 사고를 도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첫 2학기 수업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후 필독교양세미나라는

6) <https://www.youtube.com/watch?v=NsdSZ6Z85M>

이름으로 방학 때 GB 세미나를 5번 이상 참여한 학생들은 1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줌으로 개설하여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았다. 비교과과정으로는 비경쟁 토의경연대회, 스튜디오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학기 중에는 교수 1명, 학생 20명의 형태로 GB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그간 인천 지역과 춘천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먼저 인천 지역에서는 교양 수업에서 시도한 GB 세미나를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인천대 교수 2명이 15-20명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과 동근 대형으로 앉아 고전이나 명저의 발췌본을 읽고 토의를 했는데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줌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반응은 인천대 교양 수업을 들은 대학생들과<sup>7)</sup> 마찬가지로 매우 긍정적이었고 참관한 교사들도 이러한 토의식 수업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며 다음해에도 세미나 진행을 요청해서 현재 여러 고등학교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는 1학기에 인천대 교수들이 함께 하는 GB 세미나를 수강한 학생들이 2학기에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자신들만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식으로 자리잡아서 토의식 수업 방식을 자발적으로 발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춘천 지역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인천 지역과 비슷하게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학 교양 수업과 비슷한 난이도의 GB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중학생들과도 진행을 했다. 중학생의 경우 1학년 자유학년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고전독서반 수업에서 토의식 수업을 시도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문해력과 독서 능력을 고려하여 원본의 발췌본이 아니라 A4 2페이지 정도의 요약본을 수업 시간에 읽고 관련 동영상과 개념 이해를 돕는 학습지를 활용하여 토의를 진행했다. GB 세미나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심층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점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학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텍스트를 이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 적극적으로 읽어 나가며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세미나에서 다루는 텍스트의 내용이 수능 모의고사 등에 나오는 지문들과 연결되기도 하였고 전반적으로 발표 능력 향상을 통해 면접과 논술 시험 준비 등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도 있다.

시민 대상 토의 세미나도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민 교육 프로그램인 트라이버시티 과정을 통해 2년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인천 지역 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GB 세미나를 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매년 상반기에 미추홀 도서관에서 대면으로 GB 세미나를 진행했고 이러한 세미나에는 인천 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지역 시민들이 찾아와서 세미나에 참석했다. 춘천에서는 춘천시립도서관에서 시민 대상 세미나를 지난 2년간 대면으로 진행했는데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 대상 세미나의 장점은 독서를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분명한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미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7)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바람. 이용화 (2021). 세인트존스 칼리지의 세미나 모델을 적용한 교양 세미나 수업 개발 및 효과 검증. *교양교육연구*, 4(15), 113-132. DOI : 10.46392/kjge.2021.15.2.113

듣고 거기에 비추어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거나 수정하는 데 필요한 사고의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다. 또한 주어진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발언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거나 아직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민 대상 GB 세미나에 참석하는 튜터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세미나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세인트존스 모델의 토의식 수업 확산에 있어 주목할만한 성과 중 하나는 인천과 춘천을 연결하는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데 있다. 2022년부터 인천대 교원들과 한림대, 강원대 일부 교원들이 교류를 통해 인천대학교에서 개발한 GB 프로그램을 춘천 지역에도 도입했다. 2023년 12월에는 인천대에서 세인트존스 대학 튜터를 초청하여 인천대에서 포럼을 열고, 인천대, 한림대, 춘천시청이 협력하여 한림대에서도 포럼을 열어 지식 공동체 확산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인천대에서 주관하는 GB 캠프에 강원대, 한림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하여 지역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향후 과제 중 가장 우선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세인트존스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전국에 토의식 교육을 보급하는 것이다. 2024년 5월말에는 세인트존스 대학 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인천대, 한림대, 강원대, 춘천시청과 함께 고전, 명저 기반의 토의식 교육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세인트존스 대학과의 협업은 교수진의 질적 향상과 교수법과 교재 연구 및 개발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특히, 인천대와 세인트존스 대학은 2024년 가을부터 상호 교원을 파견하여 세미나를 공동진행하며 세인트존스 세미나를 모델로 한 교수학습법 습득과 한국형 수업모델 개발을 지속하고자 한다.

대학교육 차원에서는 좀 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미 인천대에서는 스튜디오 세미나라는 형태로 고전, 명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토의를 통해 현대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수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공 수업에서도 토의식 수업의 장점을 살려서 학생들의 능동적, 주체적,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중등교육 차원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입시와 연관되지 않은 학생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천대 GB 센터 소속 교원들 일부는 인천시 교육청 영어 교사 연수와 경기도 교육청 윤리 교사 연수를 통해서도 GB 토의식 수업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을 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확대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토의식 수업 방법을 전수하여 고등학교 교사들이 GB 수업 튜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독해력을 고려할 때 원전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교재 개발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향후 2-3년 동안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개발하여 시범 토의 수업을 진행하고 교재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더 넓은 층위에서 고전, 명저 기반 토의식 교육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 차원에서 토의식 교육을 확산시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교수자 양성이다. 대학의 교원은 직접 중등교육 과정 세미나에 교수자로 참여하기보다는 교수자 양성과

교재 개발 쪽에 집중하고 중등교육 교사나 초등학교 혹은 방과후 교사에게 토의식 수업 교수법을 전수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교육 도시를 표방하는 지자체인 춘천시가 교육특구사업을 통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강원대와 한림대가 유기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고전, 명저 기반의 토의식 교육과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중등교육 및 시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재정과 자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앞으로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Broder, M. (2013). Tradition vs. reception as models for studying the Great Books. *Classical world*, 106(3), 505-15. DOI : 10.1353/clw.2013.0058
- Delbanco, A. (2012). *College: What it was, is, and should be*, 이재희 역 (2016). 왜 대학에 가는가. 문학동네.
- KBS (2016). 명견만리: 윤리, 기술, 중국, 교육 편. 인플루엔셜.
- Liessmann, K. P. (2008). *Theorie der unbildung: Die irrtümer der wissengesellschaft*, 라영균, 서송석, 서정일, 정현경, 최성욱 공역 (2018). 물교양 이론: 지식사회의 오류들. 한울아카데미.
- Marber, P. (2017, June 21). The Most Forward-thinking, Future-proof, College in America Teaches Every Student the Exact Same Stuff. *Quartz*. Retrieved from <https://qz.com/994810/the-most-forward-thinking-future-proof-college-in-america-teaches-every-student-the-exact-same-things>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d.). *Enrollemnt in postsecondary education, by level off enrolement, level of institution, student age, and major field of study: 2015-16*. Retrieved from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18/tables/dt18\\_311.60.asp?curent=yes](https://nces.ed.gov/programs/digest/d18/tables/dt18_311.60.asp?curent=yes)
- Nelson, C. A. (2001). *Radical visions: Stringfellow Barr, Scott Buchanan, and their efforts on behalf of education and politics in the twentieth century*. Praeger.
- Pope, L. (2006). *Colleges that change lives: 40 schools that will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colleges*, 김현대 역 (2008).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 한겨레출판.
- Ziglar, Z. (1997). *Something to smile about: Encouragement and inspiration for life's ups and downs*. Nelson Books.

## **St. John's College's Great Books Curriculum Envisioning Liberal Education through the Classics**

**LEE YONGHWA**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faceted reasons why people pursue higher education, encompassing economic, political, and humanistic perspectives. There is a consensus among experts regarding the positive impacts of university education o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dividual empowerment, leading to societal and material prosperity. Additionally,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nurturing informed citizens for a thriving democracy, drawing on historical insights from Thomas Jefferson,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The paper critically assesses the current inclination towards vocational training in higher education, warning against the neglect of the broader societal and intellectual benefits of classical liberal arts education. It proposes the model of St. John's College, renowned for its unique classical curriculum and seminar method, as a potential blueprint for revitalizing liberal arts education in South Korea amidst rapid technological and societal changes. The study suggests that adopt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education, which balances professional skills with classical wisdom, could better prepare students for a future of diverse careers and lifelong learning, thereby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the cultivation of versatile, well-rounded individuals. Finally, this paper explains what efforts have been made to incorporate such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 into the major and general education curricula of South Korean universities and what more needs to be done henceforth.

---

### **Keyword**

St. John's College, Great Books Curriculum, Classics, Liberal Arts Education